

## 공연전시소개

# 이달의 공연

### 세종문화회관, 2019년을 장식할 공연들!

세종문화회관의 지난 40년의 영광과 환희를 뒤로하고 새로 출발하게 될 2019년을 맞아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1월 예정인 전체 공연 라인업을 발표하기 전 호기심 많은 관객들을 위해 내년 세종문화회관이 준비한 주요 공연을 선보인다.

우선, 2019년은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 서울시예술단이 이를 기념하여 서울시합창단 〈삼일절 100주년 기념 칸타타 (3.2 세종대극장)〉로,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은 대한민국의 독립에서 미래의 평화통일을 이루기까지 한국의 100년을 노래하는 〈독립에서 평화통일까지, 한국의 100년을 노래하다 (4.5~6 세종M씨어터)〉를 준비하고 있다.

클래식 애호가라면 손꼽아 기다릴만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그레이트 오케스트라 시리즈로

1548년 창단, 독일의 대표적인 오케스트라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며 슈츠, 베버, 바그너 등 수많은 궁정악장을 배출한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 내한공연〉이 오는 9월 27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또한, 한-헝가리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헝가리의 대표적인 작곡가 프란츠 리스트의 음악을 비롯하여 다양한 현대 작곡가 작품을 연주할 〈헝가리 뮤직 나이트 (10.18 세종대극장)〉, 모차르트와 당대 최고의 대본가 로렌초 다폰테가 만나 실존했던 호색한의 인간본성을 다룬 오페라 〈돈 조반니 (10.30~11.2 세종대극장)〉도 선보인다.

문학작품을 무대화한 작품도 선보인다. 괴테의 문학작품 '베르테르'를 격정적인 오페라로 재탄생시킨 서울시극단 김광보 단장의 오페라 연출작 서울시오페라단의 〈베르테르 (5.1~4 세종대극장)〉, 셰익스피어의 동명의 소설을 가족 뮤지컬로 선보이는 서울시뮤지컬단의 〈베니스의 상인 (5.28~6.16 세종M씨어터)〉을 만나볼 수 있다.



서울시예술단은 창작활성화 및 보급을 위한 다양한 창작 작품을 선보인다. 우선, 서울시극단은 다양한 창작 공연들을 선보인다.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는 창작플랫폼 선정작 <포트폴리오 (3.14~16 세종S씨어터)>, <여전사의 섬 (3.21~24 세종S씨어터)>, 신진 연출가와 함께 만들어가는 <창작 프로젝트 (9.20~10.6 세종S씨어터)>, 중국 연극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귀스싱 원작의 창작극 <물고기인간 (11.1~11.18 세종S씨어터)>을 선보이며, 서울시청소년국악단은 산조류과를 새롭게 정의하는 과격적인 전통무대 <류과대전 類波大展 (4.12 세종S씨어터)>을, 서울시무용단은 2015년 시작, 매년 한국무용을 주제로 다양한 장르, 음악들과 콜라보레이션하는 <더 토평 (12.4~7 세종S씨어터)>을 선보인다

어린이·가족들을 위한 공연도 빼놓을 수 없다. 가정의 달 5월에 디즈니의 주요 음악을 오케스트라로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디즈니 인 콘

서트 <5.18~19 세종대극장>, 쉽게보는 셰익스피어 시리즈로 가족들을 위한 음악극 <템페스트 (20.1.10~2.2 세종M씨어터)> 등이다.

또한, 세종문화회관의 2019년을 화려하게 수놓을 다양한 공연들도 준비하였다. 초연 당시 화제가 되었던 공연으로, 두 개로 나눠진 시공간에서 4개의 공간 4개의 이야기를 관객이 함께 참여하여 펼쳐지는 <더 헬멧 (1.8~2.27 세종S씨어터)>, 1983년 개봉한 동명의 영화를 원작으로, 천장부터 쏟아지는 물줄기 아래에서 보여주는 파워풀하고 열정적인 댄스 장면이 압권인 영국 웨스트엔드 오리지널 내한공연 뮤지컬 <플래시댄스 (1.18~2.17 세종대극장)>, 암흑의 시대를 밝힐 아더왕과 그의 성검 엑스칼리버, 전설적인 영웅들의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로 세종문화회관과 EMK 공동주최 세계초연 뮤지컬 <엑스칼리버 (6.14~8.4 세종대극장)> 등을 선보인다.





## 풍자와 해학의 판소리 각색한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는 2014년 초연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연말연시 대표 레퍼토리다. 신작 <춘풍이 온다>는 마당놀이 시리즈 네 번째 작품으로 풍자와 해학이 풍부한 판소리계 소설 '이춘풍전'을 바탕으로 한다.

기생 추월의 유혹에 넘어가 가산을 몽땅 탕진한 춘풍을 김 씨 부인과 몸종 오목이가 혼쫓내고 재치 있게 구해내 가정을 되살린다는 내용으로, 남편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여중호걸의 모습을 유쾌하게 그리고 있다.

이번에는 원작의 김 씨 부인을 춘풍의 어머니로, 몸종 오목이를 춘풍의 부인으로 설정하는 등 시대에 맞춰 고전을 각색함으로써 더욱 활기 넘치고 재미

있는 마당놀이 한 판을 선사한다. 허랑방탕한 춘풍 역에는 이광복과 김준수, 지혜롭고 당찬 오목이 역에는 서정금과 조유아, 김 씨 역에는 김미진, 평양 기생 추월 역에는 홍승희, 꼭두쇠 역은 최호성이 맡았다.

12.6-2019. 1. 20 달오름극장



가시적 형태를 통한 비가시적

대상 표현 / 홍경표

나는 대상을 통하여 대상보다는 대상의 속성을 탐구하는데 집중한다. 눈에 보여지는 대상의 표피보다는 대상의 속성에 오히려 대상의 실체가 있다는 생각에서이다. 그러하므로 내가 표현하는 대상은 대상으로도 존재하고, 대상의 속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존재한다. 나에게 있어서 그림은 풍경 속에서 발견하는 생명의 기운을 색과 힘찬 필치를 통해 시각화하는 일이다.

야경과 파도 등의 사실적인 형태감을 형성하는 나의 화면은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 중첩과 두꺼운 마티에르와 힘찬 필치와 원색에 의하여 형성된, 형태를 분간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색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꺼운 마티에르와 힘찬 필치다. 나의 작업은 두꺼운 마티에르와 힘찬 필치때문에 순간의 집중력을 요한다. 그리고 이 집중의 순간에 무의식적인 전이의 힘을 화면에 담아내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조형적으로 순수한 상징성과 심리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원인이다. 나의 풍경이 풍경 이상의 효과를 획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실재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실재하지 않다고 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대상을 안다는 것은 우리들의 세계를 넓히는 일이고,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시적인 형상을 통해 비가시적인 대상을 보며, 우리는 대상의 또 다른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인 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것이 대상의 실제 real인지도 모르는 것이다.

홍경표(洪景杓 Hong kyeng-pyo)

- 홍익대미술대학원(회화전공) 졸업.
- 개인전 42회 / 초대전·단체전 430회.
-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 경북미술대전 최우수상 및 특선 3회 / 신라미술대전 최우수상 및 특선.
- 경북미술대전 초대작가상 수상
- 작품소장처: 호주시드니총영사관, 포항시립미술관, 경북도청, 삼성전자, 고려제약, 한전프라자, 상호신용금고, 울진군청, 울진경찰서, 울진자활센터.

